



고위험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화정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일산동구 동네 의원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3곳 긴급 운영

시는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역인 화정 문화광장(화정역 4번 출구), 고양관 광정보센터(정발산역 1·2번 출구), 경의선 일산역 광장 등 3곳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했다. 또한, '안심카' 선별진료소(주교 제1공영주차장)도 재개했다.

특히, 3곳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기존 검사방식인 RT-PCR 검사(정확도 99%)를 하고, 현장에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정확도 90%)' 방식도 희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RT-PCR 검사 방식은 전문기관에 검체를 의뢰하면 최소 6시간 이후에 확진 여부를 알 수 있고 정확도가 높다.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은 현장에서 15~30분 이내에 확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어 검사 이후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도 재운영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주말·공휴일 없이 운영했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고양시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시설 종사자 2월 14일까지 이동 제한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작년 12월 8일 공고하고 올해 2월 14일까지 시행한다. 행정명령에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속항원키트를 구입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했다.

카페, 음식점 인근 도로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페·음식점 등 상가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올해 2월까지 완화한다. 완화된 내용은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카페 1천 916곳과 음식점 1만 2천 482곳 등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고양 시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한다.

기간은 올해 2월 28일 자정까지이다.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 + + '우리집'부터 방역에 동참해 주세요 +

최근 3차 대유행은 가족, 직장, 소모임 등 '일상 속 조용한 감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11월 확진자 229명 중 65%가 타 지역 감염이며 35%는 가족 간 감염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가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확진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킨텍스캠핑장 등)에 가족 간 분산 격리를 권고하는 등 가족감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의 동참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이제 '내 집'에서부터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감염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체크리스트

- ☑ 가족행사·모임 자제 및 집들이 자제
- ☑ 연말 및 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 ☑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손 씻기 ★
- ☑ 수저, 수건 등 개인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반찬은 각자 덜어먹기 ★
- ☑ 매일 집을 주기적으로 환기·청소·소독하기 ★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

가정 내 고령자, 기저질환자, 고위험지역(시설) 방문자가 있을 경우 더욱 조심!

🏠 증상이 있을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 및 생활하고, 공용용품 사용 자제